

## 후원안내



### 후원미사 안내\*

매월 세 번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11월 후원미사는 19일, 12월 후원미사는 17일, 2019년 1월 후원미사는 21일에 봉헌합니다.  
 참석하실 수 있는 후원회원은 성북구 보문동에 위치한 **노동사목회관**으로 오세요.  
 감사합니다

문의 / 02.924.9970~1

### 2018년 9월 후원회원 후원금 사용 내역서\*

#### 수입내역

수입 총액	17,315,380	전월이월금	5,000
지 로	1,919,780	우리은행	6,976,100
국민은행	4,016,000	하나은행	1,071,000
조흥은행	115,000	신한은행	1,130,000
외환은행	377,500	제일은행	145,000
농 협	1,155,000	기업은행	375,000
우 체 국	30,000	교구보조	-

#### 지출내역

항 목	지 출	세부내역	
단 체 찬 조 비	베들레헴어린이집	6,500,000	인건비, 주부식비, 교육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등
	베다니아의 집	1,500,00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등
	벗들의 집	925,00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행사비 등
	마교네공부방	1,200,000	간식비, 교육비 등
	사랑의집	1,500,00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등
	몽골공동체	200,000	제전비
	남미공동체	300,000	제전비
	상호문화센터	700,000	한글반 외 운영 프로그램 비용 등
소 계	12,825,000		
지원금	노동사목위원회	-	장기수선충당금 등
운영비	이주사목위원회	4,474,822	운영비 등
지출 총액	17,299,822	잔액(이월금)	15,558

### 후원계좌 안내\*

**우리은행** 454-006742-13-007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국민은행** 093-01-0297-691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 좋은이웃

www.seoulmigrant.net

2018. 10 / 제28호

펴낸날 2018. 10. 15 | 펴낸곳 이주사목위원회 | 펴낸이 남창현 | 편집 김평안 | 주소 (우)02872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95 노동사목회관 4층 이주사목위원회  
 전화 (02)924-9970~1 | 팩스 (02)924-9972 | 이메일 migrant@catholic.or.kr | 홈페이지 www.seoulmigrant.net

## 신부님글

지난 여름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혹독했기 때문일까요. 올 가을 하늘은 유난히도 청명하고 아름답기만 합니다. 이 좋은 계절에 등산들 많이 가지지요. 저도 한해 한해가 지날수록 산이 좋아집니다. 한 이년동안을 매주 관악산에 올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늘 가는 코스로 올라가지만 매번 갈 때마다 느낌은 달랐습니다. 봄이 다르고 여름이 다르고 가을이 다르고 겨울이 달랐습니다. 함께 오르는 벗들과의 이야기가 다르고 새들의 울음소리가 다르고 나뭇잎사이로 부서지는 햇살이 다르고 약수터에서 마시는 약수물의 맛도 항상 달랐습니다. 눈앞에 들어오는 풍광이 다르고 코끝을 스치는 숲의 향기가 달랐습니다. 등산화에 닿는 흙의 질감이 다르고 이마에 땀을 식혀주는 시원한 바람의 공기가 늘 달랐습니다. 이렇듯 산이 주는 매력은 몇 가지 단어로 묘사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것 같지만 합니다. 그래서 산이 왜 좋냐는 친구의 물음에 '일단 너도 가봐'라고 밖에 답을 못했던 모양입니다.

산악인들이 좋아하는 영화 중에 '히말라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명장면들이 많이 있는데 영화 앞부분에 초짜 열혈 젊은 산악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히말라야 정복하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이 말에 베테랑 산악인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정복? 산쟁이들이 정복이란 말 써, 안 써? 죽을 똥 살 똥 올라가서 헐떡거리며 몇 분 정상에 머물다 오면서 정복? 너희들은 자격없어!'

맞는 말이지요. 서두에서처럼 일반인들이 쉽게 오르는 산도 단순하게 어떻다고 규정할 수 없는 법입니다. 평생을 같은 산을 올랐다고 해도 내가 이 산을 다 안다고 누가 감히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수많은 모습과 생명을 품고, 매번 새로운 옷을 갈아입는 산, 거기에 이러한 산안에 있는 수많은 길들 중 우리는 몇 가지 산길을 걸을 뿐입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역시 각각의 고유한 산과 같습니다. 그 누구도 다 알 수 없는 내밀한 역사를 가진, 상처와 영광, 사랑과 아픔을 간직한 산과 같습니다. 살면서 누군가를 만나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그를 악인으로 규정할 수 없고, 내가 은혜를 베풀었다 해서 그에게 영원히 은인으로 기억되길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저 주님의 섭리 안에서 그 사람이라는 산에 잠시 올랐을 뿐, 내가 그를 어찌 다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늘 감사한 후원자 여러분, 이 아름다운 계절에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내어주고 기꺼이 행복을 주는 산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좋은 산이 되어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한사람 한사람을 산을 오르듯 천천히 알아가는 기쁨을 만끽하기를 기도합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이주사목위원회 위원장 남 창 현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

### 공동체 소식

#### 이주노동자상담실 소식\*

각 교구별 이주사목위원회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민 현상의 중요성을 깨닫고 국내에 있는 이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상담실, 쉼터 등을 운영하고 국가별 공동체에서는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대전교구에서 사목 중인 천안모이세의 수도자, 직원들이 지난 달 서울대교구 이주사목위원회를 방문했습니다. 이주민들의 고충과 자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실무자들의 업무 고충을 나눌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스도 정신으로 환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사목을 펼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상호문화센터 소식\* 조기적응 프로그램

입국 초기단계의 이주민을 대상으로 기초적인 생활정보에서부터 상호 문화이해 교육, 체류절차 등 한국생활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조기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사소통, 낯선 환경 등의 한국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민들은 전문 강사와 선배 이민자의 멘토링으로 한국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실질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 필리핀 공동체 소식\* 추석행사

타국에서 홀로 보내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게 명절은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커지는 날입니다. 필리핀 공동체에서는 고향에 갈 수 없는 이주노동자들을 위해 지난 9월 30일 동성고등학교에서 추석맞이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티켓판매와 후원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필리핀 이주노동자들은 함께 모여 외로움을 달래고 기쁜 명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관심 갖고 기도와 후원해 주신 분들께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베들레헴어린이집 소식\*



▲ 소방대피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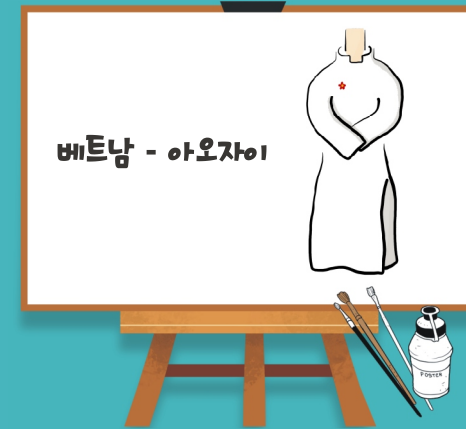


▲ 추석맞이 송편빚기



▲ 민속놀이(고리걸기)

### 문화알림 전통의상 1편



아오자이는 원래 흰색의 원단으로 만들어 입는 옷이었는데 흰색은 순수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베트남 사람들의 강한 민족성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 디자인과 색상에도 많은 변화가 있게 되어 주로 어린 여학생들만이 흰색의 아오자이를 입고 미혼인 젊은 여성들은 연한 파스텔 색조를, 기혼 여성들은 화려하고 강렬한 색의 아오자이를 입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남성용 아오자이도 있지만 결혼이나 전통의식 등에 한정적으로 입기 때문에 남성들이 입은 모습을 보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청나라 때 만들어진 의상으로 청나라의 만주족이 입던 옷에서 유래하였고, 청나라 순치제때 수도를 현재의 북경으로 옮기면서 치파오가 전국적으로 중국어인들에게 보급되기 시작하여 지금의 중국 고유 전통의상으로 자리매김 되었습니다. 한국의 한복도 길이의 변화, 원단의 재질 등 변화된 것처럼 치파오도 폭이 넓고 맛있는 형태의 치마였는데 서양의 영향으로 인해 치마와 소매가 짧아지고 몸의 실루엣이 한눈에 보이는 형태로 변화되었습니다. 중국에서의 붉은색과 금색은 재물을 뜻하여 전통의상에도 금색과 붉은색의 조화로 많이 입습니다.



검소한 유목민인 몽골 사람들이지만 전통의상인 델은 화려하며 보통 한 겹으로 된 길고 품이 넓은 가운데로, 앞부분을 크게 겹쳐서 비단 장식을 한 허리띠로 졸라매는 의상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영하 40도의 매서운 추위에 잘 견딜 수 있도록 소매가 길다. 겨울에 말을 타고 이동할 때 손을 따뜻하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델에 '부스' 라는 허리띠를 하는데 남성 허리띠는 보통 3m의 길이이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감아 나중에는 감아진 허리띠 사이로 나머지를 정리하는 방법으로 착용합니다. 미혼여성은 허리띠를 착용할 수 없습니다.